

외국인을 위한 방재 안내문

◇재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웃들과 교류하고, 각종 재해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 위치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.

◎풍수해(태풍, 호우, 폭풍해일, 회오리, 토사재해)

1. 풍수해(태풍·호우) 대비

- (1) 노베오카시에서는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, 7월~10월까지의 태풍 등, 풍수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가 있다.
- (2) 평상시에 TV, 라디오, 인터넷으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한다.
- (3)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피난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,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피난소와 피난경로를 확인해 둔다.
- (4) 노베오카시가 발령하는 피난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둔다.

종류	발령시기	시민행동요령
피난준비정보	재해 발생 위험이 높고,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피를 시작해야 할 때 발표	○고령자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피를 시작한다. ○일반 시민들은 대피할 준비를 한다.
피난권고	재해 발생 위험이 명확해졌을 때 발령	○일반 시민들도 대피한다.
피난지시	재해 발생 위험이 아주 높을 때 발령	○대피 시에는 서둘러 행동을 완료한다. ○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서둘러 대피한다.

- (5) 평상시에 물받이나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해 둔다.

2. 태풍 발생 시, 행동요령

- (1) 빨랫대, 화분, 플랜터 등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물건은 집 안에 둔다.
- (2) 덧문이 없는 유리창은 날아오는 물건이나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을 친다.
- (3) 단수에 대비하여 음료수나 생활용수를 준비하고,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.
- (4) 가족들과 한 번 더, 피난장소와 피난경로를 확인한다.
- (5) 피난할 때, 가스 밸브나 전기차단기는 반드시 차단한다.
- (6) 위험을 감지하면 '피난권고' 발령 전이라도 서둘러 대피한다.

3. 폭풍해일 발생 시, 행동요령

- (1) 해안지대에서는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폭풍해일에 주의해야 한다. 특히 강풍이 만조 시와 겹칠 때는 서둘러 대피한다.

4. 회오리 발생 시, 행동요령

- (1) 회오리는, 강한 상승기류와 공기가 나선형으로 격하게 소용돌이치는 것으로 태풍이 통과하고 있을 때나 한랭전선이 인접했을 때에 발생한다.
- (2) 기상대는 회오리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면 ‘회오리 주의정보’를 발표하는데 발표가 해제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행동한다.
 - ①집 밖에 있을 경우, 튼튼한 건물 안으로 피한다.
 - ②집 안에 있을 경우, 창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실내 중심부로 이동하거나 건물의 가장 낮은 층으로 이동한다.

5. 호우 발생 시, 행동요령

- (1) 불어나는 개울이나 수로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.
- (2) 하천 인근의 민가에서는, 홍수 발생 위험을 대비하여 서둘러 피난준비를 한다.
- (3) 산속, 산을 깎아 만든 택지, 공업용 토지, 산에서 평지로 흐르는 하천, 벼랑 근처, 급격한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토사재해 전조현상에 주의한다.

토사재해의 종류	전조현상
절벽 붕괴 (벼랑이 무너지는 것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은 돌이 여기저기 떨어짐 • 물이 솟아 나옴 • 벼랑에 갈라진 틈이 보임
사태 (경사표면의 흙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못이나 우물의 물이 흐려짐 • 지면에 균열이 일어남 •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 나옴 • 산의 나무가 기울어 있음
토석류 (토사나 암석이 산 경사면을 따라 세차게 흘러내리는 것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울림이 있음 • 갑자기 강물이 탁해지고 나무가 떠내려감 •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, 하천의 수위가 내려감 (상류에서 벼랑이 무너져, 물의 흐름이 막혀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)

6. 야외활동 중에 경계할 것

- (1) 강 가운데의 모래섬(육지 부분)에서는 절대로 캠핑하지 않는다.
- (2) 비로 인해 물이 불어날 위험이 있을 때는, 하천 근처에서 캠핑하지 않는다.
- (3) 하천 상류지역의 비, 댐 정보 (댐의 물을 방류할 때의 사이렌 등)에 주의한다.
- (4)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지역주민이나 소방단원 등의 경고에 따른다.
- (5) ‘모처럼 왔으니까’라고 해서,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중단하는 용기를 가진다.

◎지진·해일

1. 평상시 대비

- (1) 지역에서 실시하는 피난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,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피난소와 피난경로를 확인해 둔다.
- (2) 만약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가족들과 상의한다.
(피난장소,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경우 안부확인방법, 집합장소 등)
- (3) 지진이나 해일 발생 시, 자택에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, 그 외의 자주 가는 장소의 지형이나 피난장소 등의 정보를 모아서 ‘만약 여기서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한다면’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른다.
- (4) 비상물품을 배낭 등에 넣어서 준비해 둔다.

◎비상물품

- 비상식(3 일분)·건빵, 통조림 등 장기보존 가능한 식료·음료
- 휴대용 라디오 ○손전등 ○건전지 ○필기도구 ○물티슈
- 약 (감기약, 위장약, 소독약, 반창고, 붕대, 거즈 등)
- ※영유아 등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는 기저귀, 분유 등

- (5) 가구 위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. 가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해 두거나 찬장의 유리나 유리창이 깨져도 사방으로 튀지 않도록 비산방지필름을 붙이는 등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.
- (6) 지진이 주간에만 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. 또한, 지진 발생 시 정전될 것을 예상하여 머리맡에 손전등이나 운동화를 준비해 둔다.
- (7) 가옥의 내진보강
가옥의 내진진단을 받고 필요한 보강공사를 한다.
※노베오카시에서는 목조주택의 내진진단비용의 일부 및 내진수리공사비용의 일부(내진진단을 받는 것이 조건)를 보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
2.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(자택에 있을 경우)

시간경과	행동요령
지진발생	○지진이다! · 침착하게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튼튼한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다.
1~2분	○흔들림이 멈췄다! · 발화 근원지 (가스 밸브, 전기차단기) 확인한다. · 가족의 안전을 확인한다. · 해일경보를 확인한다. · 신발을 신는다. (집 안에도 창문이 깨지는 등 위험요소가 많음)
3분	○모두의 안전 확인! · 이웃 중에 다친 사람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. ·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소화를 하고, 소방서에 연락한다. · 해일경보가 발령되면, 비상물품을 가지고 이웃에게 알리고, 바로 지정 대피소로 피난을 개시한다.
5분	○정확한 정보 확인! · 라디오, 방재행정무선, 재해정보메일 등으로 정확한 지진정보를 확인한다. · 유연비어에 현혹되지 않는다. · 차로 대피하지 않는다. · 좁은 길을 통과할 경우, 콘크리트 담장 등의 붕괴에 주의한다. · 피난할 경우, 비상물품을 잊지않는다. · 피난할 경우, 가스 밸브와 전기차단기를 차단한다.
10분~몇 시간	· 협력해서 구출, 구조활동을 한다. · 붕괴된 자택에는 돌아가지 않는다.
3일	· 물, 음료는 재해 발생 전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달한다. ·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. · 휴대용 라디오로 재해정보 등을 듣는다. · 피난소에서는 서로 돕는 마을을 가진다. · 불편한 것이나 생각한 것처럼 안되는 것도 있지만, 참는 것도 중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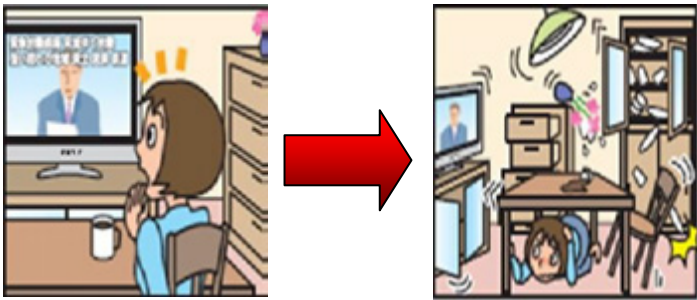
※빨간 글자는 해일 발생 시의 행동요령임.

3. 긴급지진속보

- 긴급지진속보는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해서 흔들림이 발생하기 전에, 모두에게 지진 발생을 알리는 지진예보·경보이다.
- 긴급지진속보를 들었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한다.

(1) 집 안

- ① 머리를 보호하고 튼튼한 책상 등의 밑으로 들어간다.
- ② 당황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.
- ③ 무리하게 불을 끄려고 하지 않는다.



(2) 자동차 운전 중

- ① 당황해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.
- ② 비상등을 켜고 주변 차량들에게 알린다.
- ③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,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.
- ④ 큰 흔들림을 느꼈다면, 도로 좌측에 차를 세운다.



(3) 사람이 많이 있는 시설

- ①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.
- ② 차분히 행동한다.
- ③ 당황해서 출입구로 달려나가지 않는다.



(4) 옥 외(거리)

- ① 콘크리트 담장의 붕괴 등에 주의한다.
- ② 합판이나 깨진 유리의 낙하에 주의한다.
- ③ 튼튼한 빌딩 근처라면 빌딩 안으로 피한다.



(5) 철도·버스 안

- ① 손잡이, 난간을 꼭 잡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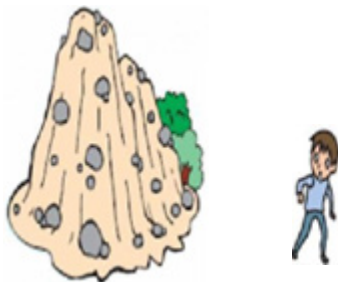
(6) 엘리베이터

- ① 가장 가까운 층에서 정지시키고 바로 내린다.



(7) 산이나 벼랑 근처

- ① 낙석이나 벼랑붕괴에 주의한다.



★긴급지진속보 ‘마음가짐’

주변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, 먼저 안전을 확보한다!

긴급지진속보를 접한 후, 강한 흔들림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은 몇 초에서 몇십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그 짧은 시간 내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